

# 조류인플루엔자(A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 AI(형질형 H5N1)로 판명되면서 소비자들의 염려가 커져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고 피가 굳어서 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인 조리온도인 100°C에서 조리시 즉각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AI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1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접촉전파)  
그러나 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 2 AI의 인체감염 경로와 사례는?

오리·닭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오리·닭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자들은 대부분 ① 감염된 오리·닭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

거나, ③ 감염축과 함께 놀았거나, ④ 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오리고기나 닭,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가금류를 먹어서는 절대 AI에 걸리지 않습니다.

## 3 오리고기·닭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나요?

AI가 발생하더라도 감염된 닭은 바로 죽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계란은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농장은 물론 주변 3km 이내(위험지역)의 모든 오리·닭 및 계란 등은 이동이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도축을 할 수 없어 시장출하가 불가능하고, 75°C에서 5분, 100°C에서는 3초 내 바이



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열처리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도압장의 경우 HACCP 기준에 맞는 도압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 4 오리·닭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닭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잦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수단입니다.

#### 5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차아염소산제제,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하이드제제, 포르말린제제, 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http://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리·닭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오리·닭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

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6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필수사항은?

오리와 닭을 키우는 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에 절대 가서는 안되며 해당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 간 경우는 신발의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 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의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 장비와 차량(특히 바퀴부분)은 오갈 때마다 항시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매일 두 차례 가금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화(☎1588-4060,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7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1주일 이상 오리·닭 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금해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 여행시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게 유의하고, 도보 탐방시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필히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시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축산물을 결코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